

교환학생 보고서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고분자융합소재 공학과	학 번	201**332	성 명	차태환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대학	마푸아공과대학교	파견학기	2016년도1학기
소요경비	왕복 항공 ₩370,000 기숙사 ₩900,000 (월 ₩150,000) 비자 연장 ₩360,000 (월 ₩60,000)				
주거	학교 기숙사 Madrigal Dormtel 2 (4인실)				
룸메이트	3명 (필리핀 마푸아공대 학생)				
기숙사 내 한국인	2명, LPU(Lyceum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 재학생				
파견대학 정보	마푸아공과대학교는 필리핀에서 공과대학으로는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학과가 존재하고 수많은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이 많습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지만, 일부 과목은 따갈로그어를 섞어 쓰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만 드리면 100% 영어수업으로 해 주십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애교심이 가득합니다. 그 곳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순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친절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Shy' 선생님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상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동아리 등 활동을 많이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가볼만한 곳 등 정보도 많이 주시고 아주 친절하십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필리핀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Mall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Mall 안에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같은 학과 학생들과 필리핀에서 유명한 쇼핑몰인 SM Mall에 가서 식사도 해결하고 쇼핑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푸아공대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할 것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Rizal Park에 가서 바람을 쐬기도 했고 Manila Bay에 가서 멋진 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대중교통으로 15분 정도면 한국 식당, 마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면 그 곳에 필리핀 친구들을 데려가, 한국 음식을 같이 즐겼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마푸아공대는 이미 정규 학생으로 전체 학생의 절반이 필리핀 학생이 아닌, 외국인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학생 제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 학교 전체 중에 5명뿐이고 정해진 멘토나 교류도우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오공대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인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며 그 학생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전공	제가 마푸아공대로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해외 학교의 경우, 들을 수 있는 학과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과가 있고 모든 학과의 과목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	교환학생은 최소 한 학기에 9학점 이상을 수강하게 되어있습니다. 마푸아공대에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과목만으로도 9학점을 충분히 듣고 올 수 있습니다. 이곳은 1년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 학기를 학교에서 지내는 셈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4학점, 다음 학기에 5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F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도 F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생할인	마푸아공대 학생증으로 관광지, 대중교통 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ISIC카드 활용	필리핀에선 학교 학생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공부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듣는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곳 친구들과 친해지면 기본 회화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올 때 가져왔던 회화 책 한 권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행	마푸아공대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마닐라대성당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여행, 관광에는 아주 큰 이점이었습니다. 택시로 10분 거리에 'Manila Bay,' 20분 거리에 'Mall of Asia,' 전철로 40분 정도 가면 'Green Belt,' 'Glorietta,' 같은 대형 Mall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ebu, Boracay, Palawan 등 아름다운 섬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중 보라카이를 다녀왔는데, 호핑 투어, 스노쿨링도 하고 해산물, 과일 등 많은 것들을 즐겼습니다.
교통	필리핀 교통수단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철(MRT, LRT), 버스, 택시, 지프니 그리고 트라이시클이 있습니다. 지프니는 미군 군용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학생 요금 단 150원이면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에 사람 2~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칸을 개조해 붙여 만든 이동 수단으로서, 가격은 1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날씨	필리핀에는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 중 마닐라 최고온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월~2월은 필리핀에서 가장 시원한 계절입니다. 28도에서 32도를 웃돕니다. 3~5월은 엄청 덥습니다. 보통 37도에서 40도 기온을 유지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의 장마 기간입니다. 비가 거의 매일 오며, 홍수가 한두 번 있습니다. 
해외인턴	-
추신	[계좌] 6개월 동안 돈을 계속 뽑아서 써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최대한 적은 시티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필리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 기준으로 2~3살이 적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합니다. 또한 한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국학생인 저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 줍니다. 심지어 복도나 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안녕하세요'를 말하는 학생과 멈춰 서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며 금방 친해지고, 전 한글을 가르쳐주며 재밌게 지냈습니다. 현지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유럽에서 거주할 때는 전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필리핀으로 교환학생을 간 것을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이들과 놀면서 이들의 문화, 언어, 놀이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치안] 특히 제가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2015년 즈음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사망 소식 등, 불안한 필리핀의 치안에 대한 뉴스가 텔레비전에 빈번히 방송되었습니다. 저 또한 필리핀으로 교환학생 가는 것을 꺼려했으나, 그 전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안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위치한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학교와 기숙사가 밀집되어있는 대학가이며 주위에 Guard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닐라 내에서 만큼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경계는 필요하겠죠? [영어]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전공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 향상까지 생각한다면, 마푸아공대가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물론,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가 유창합니다. 또한 택시기사님, 마트점원 등 모두 영어를 할 줄 알고 간판, 음식점의 메뉴판이 모두 영어로 쓰여져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언어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보완점	-